우리말 동철이음어(同綴異音語) 구별표기안

- IPA, 로마자, 한글표기를 나란히 견주어 -

유 만 근

<차 례>

1. 문자표기방식
1.1 국제음성기호(IPA) 표기 1.2 로마자 표기
1.3 우리말 음소(音素) 운소(韻素) 완전표기 한글맞춤법 시안(試案)
2. 동철이음어(同綴異音語) 구별표기 예시(例示)

이 글 목적은 국제음성기호(IPA)와 로마자로 우리말 음소(音素)·운소(韻素) 완전표기방식을 예시하면서, 현재 한글맞춤법으로 다 적지 못하는 서울말/표준말 발음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한글맞춤법 개선방향을 제시하려는 데에 있다.

서울말/표준말 발음을 잘 아는 사람이 영(英)·독(獨)·불(佛) 같은 서양어 로마자 철자를 참고하며 한글맞춤법을 검토하면, 현행 한글맞춤법이 안고 있는 표음상의 헛점·맹점이 자못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 자랑을 이대로 마냥 해도 되는 것인지 반성하게 된다. 15세기 훈민정음 표기법과 비교해도 현행 한글맞춤법은 표음면에서 많이 퇴보하여 너무 허술하다.

이론면으로 한글 제자원리가 과학적이고 한글 자모가 우수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지만, 현행 맞춤법은 표음상 중대한 결점을 가지고 있어 실용면으로 불편하기는 19세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마련한 학자들은 한자(漢字)와 대결하며 "욕하면서 닮는다"는 속담처럼 바로(바루) 한자 흉내인 '형태소주의'를 추구했을 뿐, 연산군 이래 퇴보한 한글 표음력 복원에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정씨'(丁氏)와 '정씨'(鄭氏) 또는 '적다'(筆記)와 '적다'(量少) 같이 옛글에서도 표기가 달랐고 요샛말에서도 발음이 다른 말을 구별해 적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저그니·저거서' 대신 '적으니·적어서' 같이 형태소 갈라 적을 생각만 했다. 지금 서양 외래어를 표기할 때에는 한자정신(漢字精神) 형태소주의가 많이 식어 '메이커(maker), 조깅(jogging), 모나미(mon ami)' 같은 말을 형태소 갈라적기식에 따라 '메잌어, 죡잉, 몬아미'로 적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니 다행이지만, 이 경우에는 또 형태소 구별을 무시했기 때문에 한글맞춤법 전체에 걸친 표기방

식에 일관성 결여 문제가 생긴다. 어쨌든 1930년대에 긴소리(長韻素, chroneme) 표기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실패한 한글맞춤법 통일안은, 말로 하면 구별되건만 적어 놓으면 똑같아지는 동철이음어 수천쌍을 낳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표준어 발음 보급과 한글 전용 길이 모두 순탄치 않은 것이다.

그런데 자모(字母) 자체로는 한글보다 나을 것이 없는 로마자, 희랍자를 가지고도 이런 우리말 동철이음어를 쉽게 구별해 적을 수 있다. (우리말 희랍자 표기에 대해서는 유만근. 1996. 참조.).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표음문자라는 한글로 그것을 구별해 적지 못한다면 말이 되는가? 결코 그럴 리가 없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되풀이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 글 목적은 한글 철자방식을 새롭게 발전시켜, 한글이 제자원리나 자모 자체만으로 우수할 뿐 아니라 철자면·실용면에서도 로마자·희랍자 못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 후손의 도리로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께 더 큰 영광을 돌리려는 데에 있다.

아울러 덧붙이면, 지금 이 원고를 컴퓨터로 찍는데 찍지 못하는 글자들이 많이 있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이런 원고조차 제대로 찍어내지 못하는 현용 한글 컴퓨터가 속히 개량되어야 하겠다. 갈고 닦을 여지가 많은 한글문화 장래발전을 가로막지 않으려면 한글 컴퓨터도 로마자 컴퓨터처럼 무슨 철자라도 다 찍어내야 한다.

1. 문자 표기방식

지금부터 표기 예시로 들어가기 위해 세 가지 문자 표기방식에 각각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1.1. 국제음성기호(IPA) 표기

여기서 대체로 간략표기(broad transcription) 방식으로 발음을 나타내지만 /ɾ/(ㄹ) 경우처럼 그것만 보고 내는 외국인의 발음이 우리 귀에 크게 거슬릴 경우에는 [l], [r] 구별 같은 정밀표기(narrow transcription) 방식을 가미하기로 한다.

1.1.1. 모 음

서울말/표준말 아홉 모음 '아 애 어[1] 에 오 우 어[2] 으 이'중 '아 에 오 우 이' 다섯에 각각 a e o u i를 배당하는 데는 대개 의견이 일치하므로 설명이 필요 없지만, 그 나머지 모음에는 설명을 좀 붙일 필요가 있다.

애- ɛ

[애]를 [æ]로 적으려는 사람이 있지만 옳지 않다. BBC영어(RP)에서 [æ]는 서울말 [애]와 [아] 중간쯤에 있는 소리로, 서울말 [애]보다 입을 훨씬 더 벌리고 발음해야 된다. 한국인들이 영어 [æ]를 편하게 [애]로 대용하는 수가 많은데 그것은 결코 잘된 발음이 아니다. 더구나 당치 않게 [에]로 대용하는 경우도 보인다. 예를 들면 'family:훼미리(음료), accent:엑센트(승용차), snack:스넥(음식)' 같은 한글표기 발음은 영어로 통하기엔 차라리 [화미리, 악센트, 스낵]만도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 남부 방언에서 [에]와 [애] 구별이 없으므로 그 차이를 과장하기 위해 임시로 한 번 [æ]를 써 본다면 몰라도 서울말/표준말 바른 음가(音價)를 나타내는 체계적 표기로는 옳지 않다.

어[1]- ɒ

서울말/표준말에서 '엄마/어디' 첫 음절에 나오는 모음은 절반 열린 뒤쪽 모음(open-mid back vowel)인데, 관서·관북 방언이나 호남·영남 방언 사용자는 제대로 내기 어렵다. 그것이 뒤쪽 모음이기 때문에 중앙모음 기호 [ə]를 사용하는 것은 당치 않으며, 기준 모음을 염두에 두고 [ʌ]나 [ɔ]를 사용하면 조음점이 크게 틀리지는 않지만 각각 평순성(平脣性), 원순성(圓脣性)이 지나치다. BBC영어(RP) 표기에 쓰이는 관례를 고려하면 [ʌ]는 〔아〕처럼 들리는 소리, [ɔ]는 〔오〕처럼 들리는 소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관례에 친숙해진 세계 각국사람들을 생각해서 [ʌ]나 [ɔ]보다는 차라리 열린 뒤쪽 모음기호 [ɒ]가 나을 듯하다. 서울말 모음 [어[1]]는 원순성-평순성은 별로 중요치 않고 절반 또는 그이상 열린 뒤쪽 모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우리말 형태론적으로 시선을 잠깐 던지면 [어[1]]는 '몰아/물어' 또는 '까맣다/꺼멓다'에서처럼 모음 [아]와 마주 대립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기호 모양으로도 ɑ자(字)를 거꾸로 놓은 [ɒ]가 [a]와 대조되는 데에 걸맞는 점이 있다.

어²- ɤ

서울말로 '어른(成人), 언제(何時)' 첫 음절에 나오는 절반 닫힌 뒤쪽 평순모음(unrounded close-mid back vowel) [어²]는 [ɤ]에 꼭 맞는다. 그 기호가 표준 영어 발음에 쓰이지 않아 각국인에게 다소 낯선 점은 있지만, 우리말 발음에 꼭 맞으니 그보다 조음점이 앞쪽 아래에 있는 [ɜ:/ə:] 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

으- ɯ

우리나라 안에서도 동남 방언 사용자는 [으]를 제대로 발음하기 어렵지만 그 모음은 외국인들도 대개 어렵게 여기는 것이다. 그것은 닫힌 뒤쪽 평순모음(unrounded close back vowel)이니 기호로는 [ɯ]가 꼭 맞는다. 조음점을 잘 모르는 외국학자가 중설모음 기호 [ɨ]를 [으] 기호로 잘못 쓴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국내학자도 있으나 정확한 [ɨ]소리를 우리나라 사람이 실제로 들어보면 결코 그것이 우리말 〔으〕소리가 아님을 누구라도 얼른 알 것이다.

[참고 1] 서울말에서 [외]는 [we]로, [위]는 [wi]로 발음되는 것이 보통이고 더러 특수 환경에서 음성(音聲)적으로 각각 [ø]와 [y]로 실현되는 수도 있다. 그러나 음운(音韻)적으로는 다만 특수 음소의 결합상태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원순 프로소디론(圓脣 prosody論)으로 설명하는 것이 낫다. 물론 [we] 대신 [ø]를, [wi] 대신 [y]를 더 많이 쓰는 방언이 있지만 그것이 서울권에서는 이미 옛말(구식 발음)이 되었다.

[참고 2] '의'는 소유격 조사일 때 [e]로 발음되고 그 나머지는 단어 첫머리에서 [ɯ]나 [ɯj]로, 단어 끝에서 [i]나 [ɯi]로 발음되며, 단독 한자음(漢字音)으로만 항상 [ɯi]가 된다. 그래서 '意義의'는 철자식(綴字式) [:의의의]가 아니라 [:으이에]로 발음된다. '늬, 띄, 씌, 희' 같은 음절에서는 반모음 없이 단순모음 [i]만 발음된다.

[참고 3] 길이 운소(長韻素, chroneme)는 두 점 [:]으로 나타내는데, 단어

두째 음절 이하에서 다소 짧아진 변이장운(變異長韻, allochrone)은 괄호 안에 넣어 [(:)]로 표시한다.

1.1.2. 자음

ㅈ- dz, ㅉ- tɕ, ㅊ- tɕʰ

조음점으로 보아 영어 cats/lads에 쓰이는 ts/dz는 잇몸(alveolar)소리요, cheap/jeep에 쓰이는 tʃ/dʒ는 뒤쪽 잇몸(post-alveolar)소리지만, 우리말 ㅈ,ㅉ, ㅊ 소리는 그보다 조금더 후퇴한 앞쪽 입천장(alveolo-palatal)소리이기 때문에 각각 dz, tɕ, tɕʰ 기호를 배당한다. 이런 소리 앞에 오는 ㄴ, ㄹ받침소리는 역행동화로 구개음화하여 각각 [ɲ], [ʎ]소리가 된다.

ㅅ-sʰ/ ɕʰ, ㅆ-s/ ɕ

우리말 파열음 'ㄱ ㄷ ㅂ'소리는 실제 언어사용에서 유성(g d b)음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마찰음 'ㅅ'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영어 [s]와 달리 숨보탠(aspirated) 연한 소리(lenis)로서 유성음 사이에서도 유성음으로 동화 되지 않아 [z]로 적지 않는다. 'ㅅ'을 그냥 [s]로 쓰면 세찬소리(fortis)로 오해될 것이라서 그것은 'ㅆ'소리에 쓰고 'ㅅ'소리는 [sʰ]로 적는다. 다만 ㅅ, ㅆ 다음에 모음 [i] 또는 반모음 [j] 소리가 뒤따를 때에는 ㅅ, ㅆ소리가 각각 구개음 [ɕʰ]와 [ɕ]가 된다.

1.2. 로마자 표기

【현대 한국어 음운에 대한 로마자 배당표】

ㅂ……b	ㅅ……s	ㅣ……i/y
ㄷ……d	ㅆ……ss	ㅔ……e
ㄱ……g	ㅎ……h	ㅐ……ai
ㅃ……p	ㅁ……m	ㅏ……a
ㄸ……t	ㄴ……n	ㅓ……au
ㄲ……k	ㅇ……ng	ㅗ……o

ㅍ……ph	ㄹ……r/l	ㅜ……ou
ㅌ……th	(ㅣ)……y	ㅡ……u
ㅋ……kh	(ㅜ)……w	ㅓ……eu
ㅈ……j		길이운소……-h
ㅉ……cz		사이된소리 … c'-
ㅊ……ch		

[참고] 짧은 모음 [i]가 체언(體言) 끝에 올 때는 i 자 대신 y자를 쓴다.

<예> 나비-naby, 우리-oury, 읽기-ilky.

길이운소(長韻素, chroneme)와 사이된소리 표기 용례는 다음과 같다.

<예> 밤밥(栗飯) : bahmbab [바암밥]
밤밥(夜食) : bam c'bab [밤빱]

[붙임] 음절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글자를 음가(音價) 없이 사용한다.

1) *i*字 앞에는 y字
차이(差異) cha-yih
크이 khu-yi
[비교] 사이 sa-y, 새 saih

2) u字 앞에는 w字
다음 da-wum
소음 so-wum
[비교] 자음 ja-wum, 점 jaum

3) g字 앞에는 n字
연기(煙氣) yaunn-gy
반갑다 bann-gab-ta
[비교] 방아 bang-a, 방가(放歌) bahng-ga

4) h字 앞에는 x字
기회 gi-xhweh
아홉 a-xhob
[비교] 아오(知) ah-o(現實音 ah-ou), 아호(雅號) ah-hoh
(유만근 1989a 참조)

1.3. 우리말 음소(音素) 운소(韻素) 완전표기 한글맞춤법 시안(試案)

사이된소리와 길이운소(長韻素, chroneme) 표기

사이된소리 표시는 옛글에서 낯익은 된소리 글자 ㅺ, ㅽ, ㅾ 또는 ㅆ처럼 초성(初聲)글자에 ㅅ字를 되살려 쓰기로 한다(다만 사이된소리 ㅆ은 원래 ㅆ과 구별되도록 한 획을 줄여 'ㅅ으로 쓴다). 길이운소 표기에 대한 새 방식으로는 ㅎ받침을 이용한다. 이것은 음성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현행 ㅎ받침 용법의 폐지를 전제로 하여 ㅎ받침을 긴모음 표시기호로 돌리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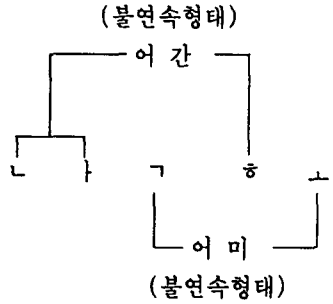
〈예〉 밤밥(栗飯) : 밝밥[바암밥]
밤밥(夜食) : 밤쌉[밤빱]

이 새로운 제안의 배경에 이로정연(理路整然)한 현대 음성학적 논거가 있어야 함은 두 말할 것도 없다. 1930년대에 채택된 현행 ㅎ받침 용법에 음성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1960년대, 1970년대에 지적된 바 있지만(유만근 1977참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후행첨기(後行添氣, post-aspiration) 현상, 예를 들어 '착해, 못해(몯해), 업혀, 잊혀…' 같은 데서 발음상 ㄱ+ㅎ→ㅋ, ㄷ+ㅎ→ㅌ, ㅂ+ㅎ→ㅍ, ㅈ+ㅎ→ㅊ 현상이 있는 것은 우리말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반대로 ㅎ+ㄱ, ㅎ+ㄷ, ㅎ+ㅂ, ㅎ+ㅈ 같은 소리연결, 즉 이른바 선행첨기(先行添氣, pre-aspiration)현상은 북미(北美) 메노미니말(Menomini)이나 아이슬랜드말(Icelandic) 또는 스코틀랜드 게일말(Scottish Gaelic)에서라면 몰라도 우리말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뒤따르는 ㅎ소리(後行添氣)를 글자로는 앞에다 적어 마치 선행첨기 같은 표기가 되었는데도 그 불합리를 못 느끼고 현행 ㅎ받침의 용법을 덥석 채택한 것은 후행첨기와 선행첨기가 엄연히 다른 소리로

서 각각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저지른 큰 잘못이다(D Jones 1960, 유만근 1977, 유만근 1995 참조).

현행 맞춤법에서 어간에 ㅎ(그리고 ㄶ, ㅀ)받침을 가진 용언을 소리대로 적고 어간·어미를 제대로 가르자면 다음과 같이 된다.



즉 '낳고'는 발음대로 적으면 어디까지나 'ㄴ ㅏ ㄱ ㅎ ㅗ'(나코)인 것이고, 여기서 어간·어미가 칼로 벤 두붓모처럼 두 덩어리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간 속에 어미, 어미 속에 어간이 서로 엇물려 있는 어형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간·어미가 마치 장부촉(dovetail) 이음새처럼 서로 맞물고 연결되어 이른바 불연속 형태(discontinuous morph)를 이룬 것이다. 1930년대에는 이 현상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언어 현상을 왜곡(歪曲)하여 어간·어미 억지분리를 시키다가 이런 ㅎ받침 표기법이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형태분석으로 보나 음성분석으로 보나 분명히 잘못된 현행 ㅎ받침 용법은 얼른 폐지하는 것이 좋다.

상식적으로는 ㅎ 소리를 편의상 자음이라 하지만 정밀하게 말하면 무성모음(devoiced vowel)이라 할 수 있고(Jones 1960 참조), 현대 언어학 소리바탕(feature) 분류법에 따르면 h소리는 모음 또는 반(半)모음과 같이 [-consonantal]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글자(ㅎ/h)를 어느 모음 뒤에 놓아도 장음기호로 최적이라 할 수 있다.[1]

---

1) 이에 대하여 '이은정(1989)'은 "모음 긴소리를 적는 데 자음 글자를 사용하는 게 옳지 않다"고 했지만, 현대 음성학/음운학 논의에서 그 반대 이유는 잠깐 도외시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우리말 길이운소(長韻素) 표기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우리말 발음살리기 내지 한글맞춤법 개선 의견이 하나 더 나온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2. 동철이음어(同綴異音語) 구별표기 예시(例示)

그럼 지금부터 동철이음어를 중심으로 우리말 음소·운소 완전표기방식을 IPA, 로마자, 한글로 예시한다. 다른 곳에서 ㄱ, ㄴ, ㄷ 자 (가, 나, 다 行) 표제어를 예(例)로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유만근 1993 참조) 여기서는 그 다음에 오는 새 자료를 연속 제공하기 위해서 ㅁ자(字) 표제어부터 시작하겠다.

【표제어】	【보조기호표기와 IPA】	【로마자 표기】	【한글표기試案】
마	마(남쪽/魔/麻)[ma]	ma	(마)
	:마(馬) [ma:]	mah/M-	*맣
마가	마가(魔/麻~) [maga]	ma ga	(마 가)
	마가(馬哥/Mark)[ma:ga]	Mah ga/Mahga	*맣가
마곡	마곡(麻谷) [magoǧ]	Magog	(마곡)
	:마곡(馬谷)[ma:goǧ]	Mahgog	*맣곡
마구	마구(닥치는 대로) [magu]	magou	(마구)
	:마구(馬具/馬廐) [ma:gu]	mahgou	*맣구
마누라	마누라(Manu神이라) [manura]	Manou ra	(마누 라)
	:마누라(妻)[ma:nura]	mahnoura	*맣누라
마는	마는(麻~/魔~) [manɯn]	ma nun	(마 는)
	마는(捲/泡食) [manɯn]	manun	(마는)
	:마는(馬) [ma:nɯn]	mah/M- nun	*맣 는
	:마는(勿) [ma:nɯn]	mahnun	*맣는
	※많은(多) [ma:nɯn]	mahnhun	*맗흔
마다	마다(每/麻/魔~) [mada]	mada/ma da	(마다/마 다)
	:마다(싫다, :말다, 馬~) [ma:da]	mahda/ mah/M- da	*맣다/맣 다

마대	마대(麻袋) [madɛ]	madai	(마대)
	:마대(馬隊) [ma:dɛ]	mahdai	*맣대
	:마대(馬山大) [ma:dɛ(:)]	Mah Daih	*맣댕
마력	마력(魔力) [marjɒ̊g]	maryaug	(마력)
	:마력(馬力) [ma:rjɒ̊g]	mahryaug	*맣력
마북	마북(麻北-里) [mabu̯g̊]	Maboug	(마북)
	:마북(馬北-里) [ma:bu̯g̊]	Mahboug	*맣북
마사	마사(麻絲) [masʰa]	masa	(마사)
	:마사(馬事) [ma:sʰa(:)]	mahsah	*맣상
마산	마산(麻山-里) [masʰan]	Masan	(마산)
	:마산(馬山-里/-市) [ma:sʰan]	Mahsan	*맣산
마성	마성(麻城) [masʰ ɒŋ]	Masaung	(마성)
	:마성(馬城) [ma:sʰ ɒŋ]	Mahsaung	*맣성
마세	마세(捲,泡飯) [masʰe]	mase	(마세)
	:마세(勿) [ma:sʰe]	mahse	*맣세
	:마:세(馬貰) [ma:sʰe(:)]	mahseh	*맣셍
마셔	마셔(飮, 捲/泡飯<존칭>) [maçʰɒ]	masyau	(마셔)
	:마셔(勿) [ma:çʰɒ]	mahsyau	*맣셔
마술	마술(魔術) [masʰul]	masoul	(마술)
	:마술(馬術) [ma:sʰul]	mahsoul	*맣술
마시게	마시게(飮/捲/泡飯) [masʰige]	masige	(마시게)
	:마시게(勿) [ma:sʰige]	mahsige	*맣시게
마시고	마시고(飮/捲/泡飯) [masʰigo]	masigo	(마시고)
	:마시고(勿) [ma:sʰigo]	mahsigo	*맣시고

마시기	마시기(飮/捲/泡飯) [masʰigi]	masigy	(마시기)
	:마시기(勿) [ma:sʰigi]	mahsigy	*맣시기
마시다	마시다(飮/捲/泡飯) [masʰida]	masida	(마시다)
	:마시다(勿) [ma:sʰida]	mahsida	*맣시다
마시지	마시지(飮/捲/泡飯) [masʰidʑi]	masiji	(마시지)
	:마시지(勿) [ma:sʰidʑi]	mahsiji	*맣시지
마실 듯	마실 '듯(如飮/捲/泡飯) [masʰiltɯɖ]	masil c'dud	*마실 뜯
	:마실 '듯(如勿) [ma:sʰiltɯɖ]	mahsil c'dud	*맣실 뜯
마의	마의(麻衣) [ma(ɯ)i]	mawuy	(마의)
	:마의(馬醫) [ma:(ɯ)i]	mahuy	*맣의
	:마의(馬意) [ma:(ɯ)i(:)]	mahuih	*맣읾
마장	마장(거리단위/麻長-面) [madʑaŋ]	majang/M-	(마장)
	:마장(馬場/～洞) [ma: dʑaŋ]	mahjang/M-	*맣장
마전	마전(麻田-里) [madʑɒn]	Majaun	(마전)
	:마전(馬田-里) [ma:dʑɒn]	Mahjaun	*맣전
	:마전(馬轉-里) [ma: dʑʏ(:)n/- dʑɒn]	Mahjeuhn	*맣젍
마제	마제(磨製) [madʑe(:)]	majeh	*마졩
	:마제(馬蹄) [ma:dʑe]	mahje	*맣제
마지	마지(麻紙) [madʑi]	majy	(마지)
	:마지(勿) [ma:dʑi]	mahji	*맣지
마천	마천(麻川-里) [matɕʰɒn]	Machaun	(마천)
	:마천(馬川-里) [ma:tɕʰɒn]	Mahchaun	*맣천
마치	마치(비슷하게/망치) [matɕʰi]	machi/-chy	(마치)
	:마치(馬齒) [ma:tɕʰi]	mahchy	*맣치

마평	마평(麻坪-里) [map^{h}jɒŋ]	Maphyaung	(마평)
	:마평(馬坪-里) [ma:p^{h}jɒŋ]	Mahphyaung	*맣평
마포	마포(麻浦/삼개) [map^{h}o]	Mapho	(마포)
	:마포(馬浦-里) [ma:p^{h}o]	Mahpho	*맣포
막	막(마구/幕/膜) [mag̊]	mag	(막)
	:막(이제 곧/Mark) [ma:g̊]	mahg/M-	*맑
만	만(灣/滿/捲/泡) [man]	man	(만)
	:만(萬/勿) [ma:n]	mahn	*맒
만기	만기(滿期) [mangi]	manngy	(만기)
	:만기(萬基) [ma:ngi]	Mahn-Gy	*맒기
만난	만난(相逢) [mannan]	mannan	(만난)
	:만난(萬難) [ma:nnan]	mahnnan	*맒난
만보	만보(산표) [manbo]	manbo	(만보)
	:만보(萬步/漫步) [ma:nbo(:)]	mahnboh	*맒봏
만사	만사(輓詞) [mans^{h}a]	mansa	(만사)
	:만사(萬事) [ma:ns^{h}a(:)]	mahnsah	*맒삳
만생	만생(蔓生) [mans^{h}ɛŋ]	mansaing	(만생)
	:만생(晩生) [ma:ns^{h}ɛŋ]	mahnsaing	*맒생
만성	만성(慢性) [mans^{h}ʏ(:) ŋ/-s^{h}ɒŋ]	manseuhng	*만섷
	:만성(萬姓) [ma:ns^{h}ʏ(:) ŋ/-s^{h}ɒŋ]	mahnseuhng	*맒섷
	:만성(晩成) [ma:ns^{h}ɒŋ]	mahnsaung	*맒성
만시	만시(輓詩) [maɲɕ^{h}i]	mansy	(만시)
	:만시(晩時) [ma:ɲɕ^{h}i]	mahnsy	*맒시

만신	만신(輓詩는) [maŋçʰin]	mansy'n	*만시ㄴ
	:만신(晩時는) [m:ɲçʰin]	mahnsy'n	*맒시ㄴ
	:만신(巫堂) [ma:ɲçʰin]	mahnsin	*맒신
만이	만이(蠻夷) [maŋi]	many	(만이)
	:만이(晩移) [ma:ɲi]	mahny	*맒이
	※ :많이(多) [ma:ɲ(h)i]	mahnhi	*맒히
만인	만인(蠻人) [maŋin]	manin	(만인)
	:만인(萬人) [ma:ɲin]	mahnin	*맒인
만자	만'자('灣'字) [maŋtça]	man c'ja	* '만'싸
	:만자(萬字/-尺) [ma:ɲdza]	mahn ja	*맒 자
	:만'자('晩'字) [ma:ɲtça]	mahn c'ja	* '맒'싸
만장	만장(輓章) [maŋdzaŋ]	manjang	(만장)
	:만장(滿場/萬張) [ma:ɲdzaŋ]	mahnjang/mahn jang	*맒장/맒 장
	:만장(萬丈) [ma:ɲdza(:)ŋ]	mahnjahng	*맒잖
만지	만지(蠻地)[maŋdzi]	manjy	(만지)
	만지(捲/泡飯) [maŋdzi]	manji	(만지)
	:만지(勿) [ma:ɲdzi]	mahnji	*맒지
만지는	만지는(蠻地～) [maŋdzinɯn]	manjy nun	(만지 는)
	만지는(摸) [maŋdzinɯn]	manjinun	(만지는)
	만지는(捲/泡飯) [maŋdzinɯn]	manji nun	(만지 는)
	:만지는(勿) [ma:ɲdzinɯn]	mahnji nun	*맒지 는
만지리	만지리(摸<미래>) [maŋdziri]	manjiri	(만지리)
	:만지리(晩智里) [ma:ɲdziri(:)]	Mahnjy-rih	*맒지릷
만진	만진(摸<과거>) [maŋdzin]	manjin	(만진)
	만진(捲/泡,만지+는) [maŋdzin]	manji'n	*만지ㄴ
	:만진(勿,:만지+는) [ma:ɲdzin]	mahnji'n	*맒지ㄴ

만풍	만풍(蠻風) [manpʰuŋ]	manphoung	(만풍)
	:만풍(晩風) [ma:npʰŋ]	mahnphoung	*맒풍
말	말(末/馬/斗/捲/泡) [mal]	mal	(말)
	:말(言/마을,勿) [ma:l]	mahl	*맗
말게	말게(捲/泡) [malge]	malge	(말게)
	:말게(勿) [ma:lge]	mahlge	*맗게
말고	말고(捲/泡) [malgo]	malgo	(말고)
	:말고(勿) [ma:lgo]	mahlgo	*맗고
말귀	말귀(馬耳) [malgwi]	mal gwy	(말귀)
	:말'귀(理解力) [ma:lkwi]	mahlkwy	*맗쒸
말기	말기(末期, 捲/勿) [malgi]	malgy	(말기)
	:말기(勿/中止) [ma:lgi]	mahlgy	*맗기
말길	말길(捲/泡,말기를) [malgil]	malgy'l	*말기ㄹ
	말'길(馬途, 捲/泡 方途) [malkil]	mal c'gil	*말 낄
	:말길(勿,:말기를) [ma:lgil]	mahlgy'l	*맗기ㄹ
	:말'길(言路/中止할 方途) [ma:lkil]	mahlkil/mahl c'gil	*맗 낄
말다	말다(捲/泡) [malda]	malda	(말다)
	:말다(勿) [ma:lda]	mahlda	*맗다
말 듯이	말 듯이(如捲/泡<현재>) [maldɯsʰi]	mal dusi	*말 드시
	말 '듯이(如捲/泡<미래>) [maltɯsʰi]	mal c'dusi	*말 쯔시
	:말 듯이(如勿<현재>) [ma:ldɯsʰi]	mahl dusi	*맗드시
	:말 '듯이(如勿<미래>) [ma:ltɯsʰi]	mahl c'dusi	*맗쯔시
	※:말뜻이(語義가) [ma:ltɯsʰi]	mahl tus-i	*맗 뜻이
말려	말려(~고, 捲/泡<의도>) [maʎʎɒ]	mallyau	(말려)
	말려(~서, 勿/乾<使動>) [maʎʎɒ]	mallyau	(말려)
	:말려(~고, 勿<의도>) [ma:ʎʎɒ]	mahllyau	*맗려

말리라	말리라(~고, 勿/乾<使動>) [maʎʎira]	mallira	(말리라)
	:말리라(勿, 中止<의지>) [ma:ʎʎira]	ma:hllira	*맗리라
말소리	말소리(馬聲) [malsʰori]	mal sory	(말소리)
	:말'소리(語音) [ma:lsori]	mahlssory	*맗'소리
말속	말'속(末俗) [malsoĝ]	malssog	*말'속
	:말'속(言中) [ma:lso(:)ĝ]	mahl c'sohg	*맗'솕
말수	말'수(斗數) [malsu(:)]	mal c'souh	*말'숳
	:말'수(言數) [ma:lsu(:)]	mahl c'souh	*맗'숳
말쟁이	말쟁이(用斗計量人) [maʎdʑɛŋi]	maljaingy	(말쟁이)
	:말쟁이(多言人) [ma:ʎdʑɛŋi]	mahljaingy	*맗쟁이
말제	말'제(末弟) [maʎtɕe(:)]	malczeh	*말쩽
	말 '제(捲/泡時) [maʎtɕe]	mal c'je	*말 쩨
	:말 '제(止時) [ma:ʎtɕe]	mahl c'je	*맗 쩨
말지	말지(捲/泡<현재>) [maʎdʑi]	malji	(말지)
	말'지(捲/泡<미래> [maʎtɕi]	malczi	*말찌
	:말지(勿<현재>) [ma:ʎdʑi]	mahlji	*맗지
	:말'지(勿<미래>) [ma:ʎtɕi]	mahlczi	*맗찌
말질	말질(用斗計量) [maʎdʑil]	maljil	(말질)
	말'질(末疾) [maʎtɕil]	malczil	*말찔
	:말질(背後亂說) [ma:ʎdʑil]	mahljil	*맗질
망	망(網/亡) [maŋ]	mang	(망)
	:망(守望) [ma:ŋ]	mahng	*맗
망령	망령(亡靈) [maŋɲɒŋ]	mangnyaung	*망녕
	:망령(妄靈/망녕) [ma:ŋɲɒŋ]	mahngnyaung	*맗녕

망상	망상(網狀) [maŋsʰaŋ]	mangsang	*(망상)
	:망상(妄想) [ma:ŋsʰa(:)ŋ]	mahngsahng	*맣삻
망신	망신(亡身) [maŋɕʰin]	mangsin	*(망신)
	:망신(妄信) [ma:ŋɕʰi(:)n]	mahngsihn	*맣싣
망제	망제(亡弟) [maŋdze(:)]	mangjeh	*망졍
	:망제(望祭) [ma:ŋdze(:)]	mahngjeh	*맣졍
매	매(棍/磨石) [mɛ]	mai	(매)
	:매(鷹/每/매어) [mɛ:]	maih	*맿
매가	매가(妹家/棍/磨石이) [mɛga]	maiga/mai ga	(매가/매 가)
	:매가(賣家/鷹이) [mɛ:ga]	maihga/maih ga	*맿가/맿 가
매기	매기(煤氣/Maggie) [mɛgi]	maigy/M-	(매기)
	:매기(買氣/除草/系) [mɛ:gi]	maihgy	*맿기
매다	매다(棍/磨石이다) [mɛda]	mai da	(매 다)
	:매다(鷹이다) [mɛ:da]	maih da	*맿 다
	:매다(除草/系) [mɛ:da]	maihda	*맿다
매도	매도(梅島) [mɛdo]	Mai-do	(매도)
	매도(棍/磨石도) [mɛdo]	mai do	(매 도)
	:매도(罵倒/賣渡) [mɛ:do (:)]	maihdoh	*맿돋
	:매도(鷹도) [mɛ:do]	maih do	*맿 도
매자	매자(梅子〈이름〉) [mɛdza]	Maija	(매자)
	:매자(系/除草) [mɛ:dza]	maihja	*맿자
매장	매장(埋葬) [mɛdza(:)ŋ]	maijahng	*매잖
	:매장(賣場) [mɛ:dzaŋ]	maihjang	*맿장
매주	매 주(棍/磨石을 주오) [mɛdzu:]	mai jouh	*매 줗
	:매 주(鷹을 주오) [mɛ:dzu:]	maih jouh	*맿 줗
	:매주(每週) [mɛ:dzu]	maihjou	*맿주

맨	맨(空/赤/純) [mɛn]	main	(맨)
	:맨(最) [mɛ:n]	maihn	*맫
맹세	맹세(盟誓) [mɛŋsʰe]	maingse	(맹세)
	:맹세(猛勢) [mɛ:ŋsʰe(:)]	maihngseh	*맪셯
맹장	맹장(盲腸) [mɛŋʤa(:)ŋ]	maingjahng	*맹잫
	:맹장(猛將) [mɛ:ŋʤaŋ]	maihngjang	*맪장
맹추	맹추(멍추) [mɛŋtɕʰu]	maingchou	(맹추)
	:맹추(孟秋) [mɛ:ŋtɕʰu]	maihngchou	*맪추
맹추격	맹추'격(~格) [mɛŋtɕʰukjɒg]	maingchou c'gyaug	*맹추 쩍
	:맹추격(猛追擊) [mɛ:ŋtɕʰugjɒg]	maihng-chougyaug	*맪 추격
먼지	먼지(塵) [mɒnʤi]	maunjy	(먼지)
	:먼지(遠) [mʏ:nʤi]	meuhnji	*멇지
멀 듯이	:멀 듯이(如遠<현재>) [mʏ:ldɯɕʰi]	meuhl dusi	*멇 드시
	:멀 '듯이(如遠<미래>) [mʏ:ltɯɕʰi]	meuhl c'dusi	*멇 쓰시
멀지	:멀지(遠<현재>) [mʏ:ʌʤi]	meuhlji	*멇지
	:멀'지(遠<미래>) [mʏ:ʌtɕi]	meuhlczi	*멇씨
메	메(밥/山/식물이름) [me]	me	(메)
	:메(메어, 肩上着) [me:]	meh	*몋
메기다	메기다(領唱) [megida]	megida	(메기다)
	:메기다(鮎魚다) [me:gida]	mehgy da	*몋기 다
메다	메다(밥/山/식물이름+다) [meda]	me da	(메 다)
	:메다(肩上着) [me:da]	mehda	*몋다
멱	멱(冪, 自乘數) [mjɒg̊]	myaug	(멱)
	:멱(미역, 水泳) [mjʏ:g̊]	myeuhg	*멽

면	면(綿)[mjɒn]	myaun	(면)
	:면(面/免) [mjʏ:n]	myeuhn	*멷
면면	면면(綿綿)[mjɒnmjɒn]	myaun-myaun	(면면)
	:면면(面面) [mjʏ:nmjʏ:n]	myeuhn-myeuhn	*멷 멷
면사	면사(綿絲) [mjɒnsʰa]	myaunsa	(면사)
	:면사(免死) [mjʏ:nsʰa(:)]	myeuhnsah	*멷 샇
면직	면직(綿織) [mjɒŋdzi̯g̊]	myaunjig	(면직)
	:면직(免職) [mjʏ:ŋdzi̯g̊]	myeuhnjig	*멷직
면화	면화(綿花) [mjɒnhwa]	myaunhwa	(면화)
	:면화(免禍) [mjʏ:nhwa(:)]	myeuhnhwah	*멷홯
명	명(明) [mjɒŋ]	Myaung	(명)
	:명(命/무명) [mjʏ:ŋ]	myeuhng	*멷
명가	명가(名家) [mjɒŋga]	myaungga	(명가)
	명'가(名價) [mjɒŋka]	myaungka	*명 싸
명과	명과(名菓/銘菓) [mjɒŋgwa]	myaunggwa	(명과)
	명과(明과) [mjɒŋgwa]	Myaung gwa	(명 과)
	:명과(命/무명과) [mjʏ:ŋgwa]	myeuhng gwa	*멷과
명관	명관(名官) [mjɒŋgwan]	myaunggwan	(명관)
	:명관(命官) [mjʏ:ŋgwan]	myeuhnggwan	*멷관
명도	명도(明渡/冥途) [mjɒŋdo(:)]	myaungdoh	(명도)
	명도(明~) [mjɒŋdo]	Myaung do	(명 도)
	:명도(命~) [mjʏ:ŋdo]	myeuhng do	*멷도
명명	명명(明明/冥冥) [mjɒŋmjɒŋ]	myaungmyaung	(명명)
	명명(明命) [mjɒŋmjʏ(:)ŋ]	myaungmyeuhng	*명 멷
	:명명(命名) [mjʏ:ŋmjɒŋ]	myeuhngmyaung	*멷 명

명문	명문(名門/名文/明文) [mjɔŋmun]	myaungmoun	(명문)
	:명문(命門) [mjʏ:ŋmun]	myeuhngmoun	*멿문
명복	명복(冥福) [mjɔŋbo̜g]	myaungbog	(명복)
	:명복(命福) [mjʏ:ŋbo̜g]	myeuhngbog	*멿복
명산	명산(名山) [mjɔŋsʰan]	myaungsan	(명산)
	명산(名産) [mjɔŋsʰa(:)n]	myaungsahn	*명삲
명소	명소(名所) [mjɔŋsʰo(:)]	myaungsoh	*명솧
	:명소(命召) [mjʏ:ŋsʰo]	myeuhngso	*멿소
명수	명수(無名數의 반대) [mjɔŋsʰu(:)]	myaungsouh	*명숳
	명'수(사람數) [mjɔŋsu(:)]	myaung c'souh	*명'숳
	:명수(命數) [mjʏ:ŋsʰu(:)]	myeuhngsouh	*멿숳
명심	명심(銘心) [mjɔŋɕʰim]	myaungsim	(명심)
	:명심(命心<藥이름>) [mjʏ: ŋɕʰim]	Myeuhngsim	*멿심
모	모(方/角, 秧/苗, 毛) [mo]	mo/Mo	(모)
	:모(某/母) [mo:]	moh	*몽
모계	모계(謀計) [moge(:)]	mogeh	*모곙
	:모계(母系)[mo:ge(:)]	mohgeh	*몽곙
모과	모과(~菓, 4角과자) [mogwa]	mogwa	(모과)
	:모과(木瓜) [mo:gwa]	mohgwa	*몽과
모관	모관(毛管) [mogwa(:)n]	mogwahn	(모괋)
	:모관(某官) [mo:gwan]	mohgwan	*몽관
모교	모교(毛橋) [mogjo]	Mogyo	(모교)
	:모교(母校) [mo:gjo(:)]	mohgyoh	*몽굫

모기	모기(耄期, 90세) [mogi]	mogy	(모기)
	:모기(蚊) [mo:gi]	mohgy	*몽기
모나	모나(方/角) [mona]	mo-na/mo na	(모 나)
	:모나(掌鞭/操/運轉) [mo:na]	mohna	*몽나
모는	모는(方/角, 秧/苗~) [monɯn]	mo nun	(모 는)
	:모는(掌鞭/操/運轉) [mo:nɯn]	mohnun	*몽는
모도	모도(<윷놀이 용어>) [modo]	mo-do	(모 도)
	:모도(毋道) [mo:do(:)]	mohdoh	*몽돋
모두	모두(全部) [modu]	modou	(모두)
	:모두(冒頭) [mo:du]	mohdou	*몽두
모든	모든(秧/苗 든) [modɯn]	mo dun	(모 든)
	:모든(全) [mo:dɯn]	mohdun	*몽든
모반	모반(謀叛) [moba(:)n]	mobahn	*모밭
	:모반(毋斑) [mo:ban]	mohban	*몽반
모색	모색(摸索) [mosʰɛ̝g̊]	mosaig	(모색)
	:모색(暮色) [mo:sʰɛ̝g̊]	mohsaig	*몽색
모시다	모시다(苧布/毛詩~) [moɕʰida]	mosy da/M-	(모시 다)
	:모시다(事,섬기다/:몰다) [mo:ɕʰida]	mohsida	*몽시다
모씨	모씨(毛氏) [moɕi]	Mo ssy	(모 씨)
	:모씨(某氏) [mo:ɕi]	moh ssy	*몽씨
모양	모양(貌樣, 模樣) [mojaŋ]	moyang	(모양)
	:모양(某孃) [mo:jaŋ]	moh yang	*몽양
모음	모음(集) [moɯm]	mowum	(모음)
	:모음(毋音) [mo:ɯm]	mohum	*몽음

모인	모인(集) [moin]	moin	(모인)
	:모인(某人) [mo:in]	mohin	*몽인
모자	모자(帽子) [modza]	moja	(모자)
	:모자(母子) [mo:dza]	mohja	*몽자
모자란다	모자란다(帽子~) [modzaranda]	moja ra'nda	*모자 라ㄴ다
	:모자란다(母子~) [mo:dzaranda]	mohja ra'nda	*몽자 라ㄴ다
	:모자란다(不足) [mo:dzaranda]	mohjaranda	*몽자란다
모종	모종(苗) [modzoŋ]	mojong	(모종)
	:모종(某種) [mo:dzo(:)ŋ]	mohjohng	*몽죵
모주	모주(謀主) [modzu]	mojou	(모주)
	:모주(母酒) [mo:dzu]	mohjou	*몽주
모진	모진(方, 角) [modzin]	mo-jin	(모진)
	:모진(惡) [mo:dzin]	mohjin	*몽진
모함	모함(謀陷) [moha(:)m]	moxhahm	*모함
	:모함(母艦) [mo:ha(:)m]	mohhahm	*몽함
목성	목성(木星) [mo̊gsʊŋ]	Mogssaung	(목성)
	목성(木姓) [mo̊gsʏ(:)ŋ/-sʊŋ]	mogsseuhng	*목씅
몰길	:몰길(:몰기를) [mo:lgil]	mohlgy'l	*몰기ㄹ
	몰 '길(몰方途) [mo:lkil]	mohl c'gil	*몰 낄
몰 듯이	:몰 듯이(如掌鞭/運轉<현재>)[mo:ldɯsʰi]	mohl dusi	*몰 드시
	:몰 '듯이(如掌鞭/運轉<미래>) [mo:ltɯsʰi]	mohl c'dusi	*몰 쯔시
	※:몰 뜻이(掌鞭/運轉할 意思가) [mo:ltɯsʰi]	mohl tus-i	*몰 뜻이
몰래	몰래(濟州方言 '모래') [mollɛ]	mollai	(몰래)
	:몰래(비밀리에) [mo:llɛ]	mohllai	*몰래

몰려	몰려(~서<被動>) [moʎʎɒ]	mollyau	(몰려)
	:몰려(~고<意志>) [mo:ʎʎɒ]	mohllyau	*몳려
몰수	몰수(沒收) [molsu]	molssou	*몰'수
	:몰 '수(掌鞭/運轉할 수) [mo:lsu]	mohl c'sou	*몳 '수
몰자	몰'자(沒字) [moʎtɕa]	molcza	*몰싸
	:몰자(掌鞭/運轉) [mo:ʎdza]	mohlja	*몳자
몰지	:몰지(掌鞭/運轉<현재>) [mo:ʎdzi]	mohlji	*몳지
	:몰'지(掌鞭/運轉<미래>) [mo:ʎtɕi]	mohlczi	*몳씨
몸	몸(體) [mom]	mom	(몸)
	:몸(掌鞭/運轉,몲) [mo:m]	mohm	*몵
못	못(釘/池) [mod̚]	mod	*몯
	:못(不得) [mo:d̚]	mohd	*몵
몽매	몽매(蒙昧) [moŋmɛ]	mongmai	(몽매)
	:몽매(夢寐) [mo:ŋmɛ(:)]	mohngmaih	*몳밍
몽상	몽상(蒙喪) [moŋsʰaŋ]	mongsang	(몽상)
	:몽상(夢想) [mo:ŋsʰa(:)ŋ]	mohngsahng	*몳삉
무고	무고(無辜) [mugo]	mougo	(무고)
	무고(無故) [mugo(:)]	mougoh	*무곻
	:무고(巫告) [mu:go(:)]	mouhgoh	*뭏곻
무공	무공(無功) [mugoŋ]	mougong	(무공)
	무공(無孔) [mugo(:)ŋ]	mougohng	*무곯
	:무공(武功) [mu:goŋ]	mouhgong	*뭏공
무관	무관(無關/無冠) [mugwan]	mougwan	(무관)
	:무관(武官) [mu:gwan]	mouhgwan	*뭏관

무구	무구(無垢) [mugu(:)]	mougouh	*무굻
	:무구(武具) [mu:gu]	mouhgou	*뭏구
무기	무기(無期) [mugi]	mougy	(무기)
	:무기(武器) [mu:gi]	mouhgy	*뭏기
무대	무대(無代) [mudɛ(:)]	moudaih	*무댛
	:무대(舞臺) [mu:dɛ]	mouhdai	*뭏대
무도	무도(無道) [mudo(:)]	moudoh	*무돊
	:무도(舞蹈) [mu:do]	mouhdo	*뭏도
	:무도(武道) [mu:do(:)]	mouhdoh	*뭏돊
무력	무력(無力) [murjɒg]	mouryaug	(무력)
	:무력(武力) [mu:rjɒg̊]	mouhryaug	*뭏력
무등	무등(無等-里/-山) [mudɯ(:)ŋ]	Mouduhng	*무듧
	:무등(武/茂/舞等-里) [mu:dɯ(:)ŋ]	Mouhduhng	*뭏듧
무량면	무량 :면(無量面)[murjaŋmjʏ:n]	Mouryang-myeuhn	*무량 멷
	:무량 :면(武良面) [mu:rjaŋmjʏ:n]	Mouhryang-myeuhn	*뭏량 멷
무변	무변(無邊) [mubjɒn]	moubyaun	(무변)
	:무변(武弁) [mu:bjʏ(:)n/-bjɒn]	mouhbyeuhn	*뭏볃
무부	무부(無夫) [mubu]	moubou	(무부)
	:무부(武夫) [mu:bu]	mouhbou	*뭏부
무비	무비(無比) [mubi(:)]	moubih	*무빟
	:무비(movie) [mu:bi]	mouhby	*뭏비
무사	무사(無私) [mus^{h}a]	mousa	(무사)
	무사(無事) [mus^{h}a(:)]	mousah	*무샇
	:무사(武士) [mu:s^{h}a(:)]	mouhsah	*뭏샇

무산	무산(無産) [musʰa(:)n]	mousahn	*무삲
	:무산(霧散) [mu:sʰa(:)n]	mouhsahn	*뭏삲
	:무산(茂山) [mu:sʰan]	Mouhsan	*뭏산
무상	무상(無常/償) [musʰaŋ]	mousang	(무상)
	무상(無上) [musʰa(:)ŋ]	mousahng	*무샇
무선	무선(無線) [musʰɒn]	mousaun	(무선)
	:무선(舞扇/최茂宣) [mu:sʰɒn]	mouhsaun/M-	*뭏선
무성	무성(無聲) [musʰɒŋ]	mousaung	(무성)
	무성(無性) [musʰʏ (:)ŋ/-sʰɒŋ]	mouseuhng	*무섷
	:무성(茂盛) [mu:sʰʏ (:)ŋ/-sʰɒŋ	mouhseuhng	*뭏섷
무수	무수(無水) [musʰu]	mousou	(무수)
	:무수(舞袖) [mu:sʰu]	mouhsou	*뭏수
무술	무술(祭酒代用水) [musʰul]	mousoul	(무술)
	:무술(武術) [mu:sʰul]	mouhsoul	*뭏술
무신	무신(無神) [muçʰin]	mousin	(무신)
	무신(無信) [muçʰi(:)n]	mousihn	*무싣
	:무신(武臣/戊申) [mu:çʰin]	mouhsin/M-	*뭏신
무안	무안(無顔) [mua(:)n]	mouahn	*무앎
	:무안(務安) [mu:an]	Mouhan	*뭏안
무애	무애(無碍/無涯) [muɛ]	mouai/M-	(무애)
	:무애(撫愛) [mu:ɛ(:)]	mouhaih	*뭏잏
무양	무양(無恙) [mujaŋ]	mouyang	(무양)
	:무양(撫養) [mu:ja(:)ŋ]	mouhyahng	*뭏얗
무언	무언(無言) [muɒn]	mouaun	(무언)
	:무언(誣言) [mu:ɒn]	mouhaun	*뭏언

무용	무용(無用) [mujo(:)ŋ]	mouyohng	*무욤
	:무용(武勇) [mu:jo(:)ŋ]	mouhyohng	*뭏욤
	:무용(舞踊) [mu:joŋ]	mouhyong	*뭏용
무위	무위(無爲) [muwi]	mouwy	(무위)
	:무위(武威) [mu:wi]	mouhwy	*뭏위
무자	무자(無子) [mudʒa]	mouja	(무자)
	:무자(戊子) [mu:dʒa]	Mouhja	*뭏자
무장	무장(無腸) [mudʒa(:)ŋ]	moujahng	*무장
	:무장(武裝) [mu:dʒaŋ]	mouhjang	*뭏장
무재	무재(無才/財) [mudʒɛ]	moujai	(무재)
	:무재(武才) [mu:dʒɛ]	mouhjai	*뭏재
	:무재(武宰) [mu:dʒɛ(:)]	mouhjaih	*뭏잴
무지	무지(無知/智) [mudʒi]	moujy	(무지)
	:무지(拇指/茂芝-里) [mu:dʒi]	mouhjy/M-	*뭏지
무진	무진(無盡) [mudʒi(:)n]	moujihn	*무짇
	:무진(戊辰) [mu:dʒin]	Mouhjin	*뭏진
문	문(咬/門/文) [mun]	moun/M-	(문)
	:문(賠償/爛) [mu:n]	mounhn	*뭃
문경	문경(刎頸) [mungjɔŋ]	mounngyaung	(문경)
	:문경(聞慶) [mu:ngjʏ(:)ŋ/-gjɔŋ]	Mouhnngyeuhng	*뭃꼉
문과	문과(門~) [mungwa]	moun gwa	(문 과)
	문과(科擧 文科) [mungwa]	mounngwa	(문과)
	문' 과(文科 對 理科) [munkwa]	mounkwa	*문꽈
문구	문구(文具/文求) [mungu]	mounngou/Moun-Gou	(문구)
	문'구(文句) [munku]	mounkou	*문꾸

문배	문배(文培<이름>) [munbɛ(:)]	Moun-Baih	*문빙
	:문배(山梨) [mu:nbɛ]	mouhnbai	*묻배
문법	문'법(文法) [munpɒb̥]	mounpaub	*문뻡
	:문법(聞法) [mu:nbɒb̥]	mouhnbaub	*묻법
문병	문병(門屛) [munbjɒŋ]	mounbyaung	(문병)
	문병(文炳<이름>)[munbjʏ(:)ŋ/-bjɒŋ]	Moun-Byeuhng	*문벟
	:문병(問病) [mu:nbjʏ (:)ŋ]	mouhnbyeuhng	*묻벟
문부	문부(文部) [munbu]	mounbou	(문부)
	:문부(聞訃) [mu:nbu(:)]	mouhnbouh	*묻붕
문수	문수(文殊) [munsʰu]	Mounsou	(문수)
	문'수(門數/文數) [munsu(:)]	moun c'souh	*문'숭
문안	문안(文案) [muna(:)n]	mounahn	*문앉
	:문안(問安) [mu:nan]	mouhnan	*묻안
문어	문어(文魚) [munɒ]	*mounau*	(문어)
	문어(文語) [munʏ(:)/-ɒ]	mouneuh	*문엉
문의	문의(文義) [mun(ɯ)i(:)]	mounuih	*문읭
	:문의(問議) [mu:n(ɯ)i]	mouhnuy	*묻의
	※무늬(紋) [muni]	mounuy	(무늬)
문자	문자(咬者) [muɲdza]	moun ja	(문 자)
	문자(文字=숙어) [muɲdza]	mounja	(문자)
	문'자(文字=글자) [muɲtça]	mouncza	*문짜
	:문자(賠償者) [mu:ɲdza]	mouhn ja	*묻자
문전	문전(門前) [muɲdzɒn]	mounjaun	(문전)
	문전(文典) [muɲdzʏ(:)n/- dzɒn]	mounjeuhn	*문젊

문정관	문정관(文正寬) [muɲdzʏ(:) ŋgwan]	Moun Jeuhng-Gwan	*문정관
	:문정관(問情官) [mu:ɲdzʊŋgwan]	mouhnjaunggwan	*묻정관
문제	문제(文弟) [muɲdze(:)]	mounjeh	*문졔
	:문제(問題) [mu:ɲdze]	mouhnje	*묻제
문호	문호(文豪) [mun(h)o]	mounho	(문호)
	문호(門戶) [mun(h)o(:)]	mounhoh	*문홍
묻다	묻다(埋, 沾/附着) [mud̥ta]	moudta	(묻다)
	:묻다(問) [mu:d̥ta]	mouhdta	*묻다
물기	물기(咬) [mulgi]	moulgy	(물기)
	물기(~氣, 水分) [mulki]	moulky	*물끼
	:물기(賠償/爛) [mu:lgi]	mouhlgy	*묽기
물길	물길(咬, 물기를) [mulgil]	moulgy'l	*물기ㄹ
	물 '길(咬方途) [mulkil]	moul c'gil	*물낄
	물 '길(水路) [mulkil]	moulkil	*물 낄
	:물길(賠償, :물기를) [mu:lgil]	mouhlgy'l	*묽기ㄹ
	:물 '길(賠償方途) [mu:lkil]	mouhl c'gil	*묽 낄
물다	물다(咬) [mulda]	moulda	(물다)
	:물다(賠償/爛) [mu:lda]	mouhlda	*묽다
물자	물자(咬) [muʌdza]	moulja	(물자)
	물'자(物資) [muʌtça]	moulcza	*물짜
물질	물질(咬, 물지를) [muʌdzil]	moulji'l	*물지ㄹ
	물' 질(物質) [muʌtçil]	moulczil	*물쌸
	:물질(賠償/爛) [mu:ʌdzil]	mouhlji'l	*묽지ㄹ
미간	미간(眉間) [migan]	migan	(미간)
	:미간(未刊) [mi:gan]	mihgan	*밎간

미곡	미곡(米穀) [migo̊g]	migog	(미곡)
	미곡(米/尾/味谷-里) [migo̊g]	Migog	(미곡)
	:미곡(美谷-里) [mi:gog]	Mihgog	*밓곡
미관	미관(微官) [migwan]	migwan	(미관)
	:미관(美觀) [mi:gwan]	mihgwan	*밓관
미니	미니(mini) [miɲi]	miny	(미니)
	:미니(推) [mi:ɲi]	mihni	*밓니
미련	미련(愚鈍) [miɾjɔn]	miryaun	(미련)
	:미련(未練) [mi:ɾjʏ(:)n/-ɾjɔn]	mihryeuhn	*밓렫
미만	미만(彌滿) [miman]	miman	(미만)
	미만(彌漫) [mima(:)n]	mimahn	*미맏
	:미만(未滿) [mi:man]	mihman	*밓만
미망	미망(迷妄) [mima(:)ŋ]	mimahng	*미맣
	:미망(未忘/-亡) [mi:maŋ]	mihmang	*밓망
미봉	미봉(彌縫) [miboŋ]	mibong	(미봉)
	:미봉(未封) [mi:boŋ]	mihbong	*밓봉
미사	미사(mass) [mis^{h}a]	misa	(미사)
	:미사(美辭) [mi:s^{h}a]	mihsa	*밓사
미산	미산(米山/彌山/楣山) [mis^{h}an]	Misan	(미산)
	:미산(美山-里) [mi:s^{h}an]	Mihsan	*밓산
미상	미상(米商) [mis^{h}aŋ]	misang	(미상)
	:미상(未詳) [mi:s^{h}aŋ]	mihsang	*밓상
미세	미세(微細) [mis^{h}e(:)]	miseh	*미셯
	:미세(推) [mi:s^{h}e]	mihse	*밓세

미수	미수(米壽) [misʰu]	misou	(미수)
	:미수(未遂/-收) [mi:sʰu]	mihsou	*밎수
미암	미암(彌岩-里) [miam]	Miam	(미암)
	:미암(美岩-里) [mi:am]	Miham	*밎암
미진	미진(微塵) [midʑin]	mijin	(미진)
	:미진(未盡) [mi:dʑi(:)n]	mihjihn	*밎짇
미천	미천(微賤) [mitɕʰʏ(:)n]	micheuhn	*미첟
	미천(眉-/米川) [mitɕʰɒn]	Michaun	(미천)
	:미천(美川/-泉) [mi:tɕʰɒn]	Mihchaun	*밎천
미평	미평(米-/彌坪) [mipʰjɒŋ]	Miphyaung	(미평)
	:미평(美坪) [mi:pʰjɒŋ]	Mihphyaung	*밎평
미포	미포(眉浦) [mipʰo]	Mipho	(미포)
	:미포(美浦) [mi:pʰo]	Mihpho	*밎포
미풍	미풍(微風) [mipʰuŋ]	miphoung	(미풍)
	:미풍(美風) [mi:pʰuŋ]	mihphoung	*밎풍
민	민(閔) [min]	Min	(민)
	:민(推) [mi:n]	mihn	*및
민단	민단(民團) [mindan]	mindan	(민단)
	:민단(推, :민다는) [mi:ndan]	mihnda'n	*및다ㄴ
민자	민자(民自-黨) [miɲdza]	Min-Ja	(민자)
	:민 자(推者) [mi:ɲdza]	mihn ja	*및 자
민지	민지(民志) [miɲdʑi]	minjy	(민지)
	:민지(推) [mi:ɲdʑi]	mihnji	*및지

밀	밀(小麥) [mil]	mil	(밀)
	:밀(蜜蠟/推) [mi:l]	mihl	*밑
밀고	밀고(密告) [milgo(:)]	milgoh	*밀곻
	:밀고(推) [mi:lgo]	mihlgo	*밑고
밀길	:밀길(:밀기를,推) [mi:lgil]	mihlgy'l	*밑기ㄹ
	:밀 ' 길(:밀 方途) [mi:kil]	mihl c'gil	*밑 낄
밀듯	:밀 듯(如推 <현재>) [mi:dɯd]	mihl dud	*밑 듣
	:밀 '듯(如推 <미래>) [mi:ltɯd]	mihl c'dud	*밑 뜯
	※:밀 뜻(推進意思) [mi:ltɯd]	mihl tud	*밑 뜯
밀래	밀래(密來) [millɛ]	millai	(밀래)
	:밀:래(:밀라고 :해) [mi:llɛ:]	mihllaih	*밑랳
밀러	밀러(Miller) [millɒ]	Millau	(밀러)
	:밀러(推 <목적>) [mi:llɒ]	mihllau	*밑러
밀려	밀려(~서, 推 <피동>) [miʎʎɒ]	millyau	(밀려)
	:밀려(~고, 推 <의도>) [mi:ʎʎɒ]	mihllyau	*밑러
밀리라	밀리라(推 <피동>) [miʎʎira]	millira	(밀리라)
	:밀리라(推 <의도>) [mi:ʎʎira]	mihllira	*밑리라
밀양이면	밀양이면(密陽~) [mirjaŋimjɒn]	Miryang imyaun	(밀양 이면)
	:밀 '양이면(若推) [mi: ʎʎ(j)aŋimjɒn]	mihl n-yang imyaun	*밑ㄴ양 이면
밀제	밀'제(蜜劑) [miʎtɕe]	milcze	*밀쩨
	:밀 '제(推時) [mi:ʎtɕe]	mihl c'je	*밑 쩨
밀지	밀'지(密旨) [miʎtɕi]	milczy	*밀찌
	:밀지(推 <현재>) [mi:ʎdʑi]	mihlji	*밑지
	:밀'지(推 <미래>) [mi:ʎtɕi]	mihlczi	*밑찌

위에 적은 예만 가지고도 현행 한글맞춤법이 말소리를 나타내는 데 얼마나 허술한 맞춤법인지 잘 알 수 있다. 이런 맞춤법을 가지고 한글 전용을 꾀한다는 것은 마치 깨어진 수도관으로 물을 보내는 것과 같아서 정보전달에 누수적 손실이 너무 크다.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말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하겠는데 그전에 한글맞춤법 표음력(表音力)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그 성패(成敗)가 우리 한글문화 장래를 좌우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남광우(1954), "長短音攷", 『국어국문학』 12 · 13.

남광우 · 이철수 · 유만근(1984), 『한국어 표준발음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유만근(1977a), "國語醇化를 위한 國語發音의 重要問題 硏究", 『應用言語學』 9.1., 서울대 어학연구소.

—— (1977b), 『표준한국어 발음독본』, 서울 閒沙書巢.

—— (1989a), "우리말 로마자 맞춤법案 '89", 『人文科學』 19,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 (1989b), "표준말 발음과 그 보급문제," 『한국어연구논문』 37, KBS 한국어연구회.

—— (1990), "우리 옛글 · 요샛말 로마글자 표기案," 姜信沆 교수 회갑기념 국어학논문집, 서울.

—— (1992a), 『한글-로마자 대조표기 한국어 독본』, 성균관대 출판부.

—— (1992b), 한글맞춤법 表音未備點과 發音敎育問題, 『語文硏究』 74.75合,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1993), "우리말 異音同綴語 발음고찰 (Ⅰ)," 『한국어 연구논문』 37, KBS 한국어연구회.

—— (1994a), "음성언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Ⅰ)," 『한국어 연구논문』 38, KBS 한국어연구회.

—— (1994b), "음성언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Ⅱ)," 『한국어 연구논문』 38, KBS 한국어연구회.

—— (1995), "우리말 同綴異音語 발음고찰 (Ⅱ)," 『大東文化硏究』 30, 성균관대 大同文化硏究院.

—— (1996), "우리말 音素 · 韻素 완전표기 로마자 · 희랍자 · 한글 正書法案 三重對比例示," 『제 2회 음성학학술대회 자료집』, 대한음성학회.

이은정(1989), "긴소리 표기에 대하여," 『국어생활』 18, 국어연구소.

이현복(1971a), 현대 서울말 모음 음가, 『語學硏究』 7:1. 서울대 어학연구소.
——(1971b), 서울말 모음체계, 『語學硏究』 7:2. 서울대 어학연구소.
——(1988), 『우리말 표준발음』, 탐구당.
——(1989), 『한국어 표준발음』, 교육과학사.
Han, M.S.(1964), *Duration of Korean Vowels*,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Youe, Hansa MG (1986), "On the Transcribing of the Chroneme in Korean", *Linguistic Journal of Korea* 11.2 (*or Actes de la 9e Conférence Annuelle*, AKSE, 1985, Chantilly, Franc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ather pairs of heteronyms in Modern Korean and to propose that all of them should be differentiated in both the Hanngul orthography and Romanization as well as in the IPA transcription.

More than a quarter of the whole Korean vocabulary consists of words with a long vowel and the number of minimal pairs distinguished only by the chroneme reaches nearly ten thousand (i.e. twenty thousand words). It is suggested here that the letter ᄒᆞ in Hanngul and the letter ' h ' in the Roman alphabet be used to represent the long vowel.

Another factor which brings forth lots of heteronyms in Korean is the lacking of enough indication as to non-automatic reinforcement in the initial consonant of a word (or a morpheme) when following another within a phrase (or a word). It is proposed here that the non-automatincally rienforced word-initial consonant should be written with the letter ㅅ (like ㅺ, ㅼ, ㅽ, ㅾ) and an apostrophe (like 물'새 or 발'이랑, 물'약) in Hanngul, and with the letter c and an apostrophe (like c'g- , c'd- , c'b- , c'j-) in the Roman alphabet. The morpheme-initial reinforced consonant within a word is written with the letters k, t, p and cz for ㅺ, ㅼ, ㅽ and ㅾ respectively.

The contrasted pronunciations of pairs of heteronyms beginning with ㅁ /m sound are transcribed here for exemplification in the IPA, Roman alphabet and Hanngul.